



사료 원료 수급 안정·사료비 절감 '전문가 머리 맞대'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 관련 단체와 '2026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원료 수급 동향 공유, 농식품 부산물 활용 대체 사료 개발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10월 28일 오송에이치(H) 호텔에서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와 함께 '2026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제 곡물 수급 불안과 사료 원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사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생산하는 약 20개 관련 업체 연구개발(R&D)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사료산업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사료협회가 사료 원료 수급 동향과 전망을 진단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대체 사료 소재 개발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사료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농식품 부산물 등 국내 자원의 사료 활용 확대, 사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밀 사양 기술 개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 사료 소재 개발과 정밀 사양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사료 산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2023년 2,189만 톤에서 2024년 2,408만 톤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료 원료인 옥수수과 대두박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과 물류비 변동은 국내 사료산업과 축산농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국내 자원을 활용한 대체 사료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사료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료비 절감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 자원을 활용한 대체 사료 개발과 정밀 사양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 개최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	연구관	강환구 (063-238-7455)
	<div><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div>농업의 모든 것</div><div>농사로</div></div>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6.10.28.(수), 15:00~18:00, 오송 H호텔 4층회의실
- 참석업체: 국내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등 약 20개 업체
- 참석자: 사료회사 R&D 담당자 및 관련 연구자 등 약 50명
 - * 국내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관련 업체 R&D 담당자

□ 주요 내용

- (발표) 국내·외 사료 산업·정책, 사료 수급 및 대체 사료 연구 동향
 - ❶ 사료 정책(농식품부), ❷ 사료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사료협회), ❸ 부산물 활용 대체 사료 개발 연구(축산원)
 - * 김영원 사무관(농식품부), 홍현진 부장(사료협회), 심성훈 연구사(축산원)
- (토론) 사료 시장 안정화 및 사료 新 소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

□ 세부 일정

시간(분)		주요 내용	비고
15:00~15:10	10'	- 참석자 소개, 원장님 인사 말씀 - 기념 촬영	사회: 강환구 연구관 원장
15:10~15:30	20'	○ 사료 산업 정책 현황 및 계획	김영원 사무관(농식품부)
15:30~15:50	20'	○ 국내 원료 사료 수급 동향 및 전망	홍현진 부장(사료협회)
15:50~16:10	20'	○ 부산물 활용 사료 소재 개발 연구	심성훈 연구사(축산원)
16:10~16:30	20'	○ 휴식	
16:30~18:00	90'	○ 종합토론 및 폐회	가축정밀영양과장

□ 기대효과

- 국내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필요 정책 및 연구 방향 제시